◈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김은호 편집국장 : 조선근

97년 제2차 학습, 세례식

5월 18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거행

5월 4일, 11일(주일)에 교육 및 문답
일정을 잘 살피고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금년 들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학습, 세례식이 다가와 오는 5월 18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된다.

1997년부터 학습, 세례식 일정이 다소 바뀜에 따라 학습, 세례자는 물론 주위에서 권하는 교구일꾼 및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교육 및 문답은 2주 전부터 2주간에 걸쳐 주일 오후 3시~4시 50분까지 실시되며, 좀더 내실 있는 교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답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내용도 세례자와 학습자에게 맞추어 세례반과 학습반을 분리하며 학습반은 기독교개요, 성경개요, 구원론, 성도의 생활을, 세례반은 세례란, 교회론, 구원론, 성도의 생활을 네 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세례식을 금요일에서 주일로 바꿈에 따라 우선 세례받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의 하나인 세례식을 온 교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축하와 격려 속에서 당회장의 집례 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 입회하는 세례자에게나 이를 지켜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금년도에는 네 차례(2월 16일, 5월 18일, 8월 17일, 11월 16일) 학습,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이에 참여할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지난번 1차 때에 이처럼 변경된 사항들을 잘 몰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변경된 이 방식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하겠다. 학습, 세례 받을 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격

1) 학습 : 만 14세 이상(1983년 5월 이전 생)이 되고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성도

2) 세례 : 본교회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성도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5월 4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국병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란? (김필수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김재철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5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김찬곤 목사)	교육관 309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5월 18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3) 유아세례 : 본교회에 등록된 만 2세(24개월)까지의 아기로 부모 중 한편이 세례교인인 경우

4) 개종 :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성도로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성도

5) 입교 :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만 14세 이상(1983년 5월 이전 생)이 된 성도

2.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을 성도는 반드시 강의를 듣고, 확인표를 문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습 및 세례식은 찬양예배시에 당회장 목사님의 집례로 진행된다.

4월 27일(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청빙위원회가 사무국에서 모입니다.

장학헌금 및 장학기금에 참여합시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충현 소석 장학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더욱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참여하실 성도들은 일시불이나 분할로 참여하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교회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97 장애인주일

지난 4월 20일 저녁 찬양예배는 장애인 주일 기념예배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에바다부와 사랑부가 그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순서를 가졌으며 장애인 부서를 맡고 있는 이준우 강도사의 "은혜받은 후에"라는 설교로 은혜를 나누었다. 또한 이들 부서에서는 장애인 주일 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금요집회에서 찬양하기도 했다.

특별히 예년과 다르게 교육관에서는 사랑부 홍보를 위한 비디오 상영과 에바다부의 사진 전시회가 있어 성도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리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구체적인 장애인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사회인으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이들을 독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사랑부와 에바다부에서는 실업인전도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여 준 점과 어느 집사 가정에서 손수 농사 지은 쌀 한 가마니를 기증하여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들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고 있다. (글 / 정병수 기자, 사진 / 이운구 기자)

새가족부에서
'새가족환영회' 합니다

일시 / 5월 4일 오후 2시 40분 장소 / 갈릴리홀
참석대상 / 2월 16일~4월 27일 등록한 성도 및 인도자와 함께,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교구일꾼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시온산의 안전

(시편 48:1-14)

시편 48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은 47편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은 것입니다.

1. 찬양의 내용

(1)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늘의 햇빛은 휴전선 이남에도, 이북에도 비치나 물 속 깊은 곳에는 미처 비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공기는 어디든지 있으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매우 넓어 어디든지 미칩니다.

'광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지 못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을 어디서든지 찬송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찬송할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극진히 찬송해야 됩니다. 있는 정성을 몽땅 쏟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찬송을 부르지만, 부르되 체면 차리지 말고 열심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특히 성전에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2) 하나님은 성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터는 높다'고 했습니다. 높다는 말은 원수가 손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빛이 있고 영광이 충만하고 평화가 가득하며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예루살렘 북방 높은 곳, 동쪽을 향하여 있는 성전 그곳은 큰 왕의 집입니다. 세상에 사는 임금님의 궁전은 분봉왕의 집이고 성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성전 뜰에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멸한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돌면서 망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자손 만대에 그 말을 꼭 전하라고 합니다. 즉 전쟁이 지나면 성 한 모퉁이라도 부서지고 집은 불타며 사람이 병신되는 일은 수없이 많은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략을 해왔어도 예루살렘 성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대에 흠 간 곳 하나 없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성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깨어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2. 하나님의 보호하심

(1) 원수를 진멸하십니다

여호와는 성도의 보호자시니 원수가 꼼짝 못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가대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에 그들은 겁이 나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멸망의 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서둘러 서로 죽일 때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떨면서 당하는 고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아서 떨다가 죽었습니다. 죄인들이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낳고 회개는 안하고 거짓말로 젖을 먹여 키우면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그때에 당하는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욕심을 품고 지나치게 교만하여 여호사밧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다가 저희들끼리 죽고 죽이며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2)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다시스는 유명한 무역 항구입니다. 경치도 좋고 세계로 무역하는 큰 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겁날 것이 없는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교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시어 파도가 10미터, 15미터 높이 올라가면 세상의 어떤 배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다시스의 배가 깨어졌다'는 말은 가장 안전하다는 배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을 하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것이 틀림없는데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니 그들의 본전까지 없어졌습니다.

배가 짐을 싣고서 장사하러 가다가 배가 깨지면 장사하여 남기려던 이익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전도 없어지고 배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스의 배가 깨어지면 하나님께 반항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남기려던 이익뿐만 아니라 본전도, 뿌리도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한 번 '후'하고 부시면 다시스의 배처럼 깨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우리에게는 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략해왔어도 예루살렘 성은 망대에 흠 간 곳 하나 없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성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깨어진 곳 하나 없이 온전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3. 구원받은 자들의 할 일

(1) 주신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놓아 주시오" 한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우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로 왕은 태산이고 모세는 지렁이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지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태산같던 바로 왕의 세력이 모세가 지팡이를 열 번 들었다 놨다 하는 사이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권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써주신 것 뿐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이긴 후에 스스로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한 다음에 제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권능을 거두실 때에 천대꾸러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사업에 성공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며,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받은 자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만해집니다. 이와 같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과 욕심에 때묻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 찬양하고, 안믿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권면하며 힘써야 합니다. 광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널리 전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구원함을 입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천만 명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전부 예수 믿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열심으로 예수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여야 되겠습니다.

(3) 심판날에 상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껍데기는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갑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도 모든 핍박을 참고 겸손하게 수고하며 봉사한 자들은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날 상받을 준비를 합시다. 이것이 은혜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받을 은혜를 기뻐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회장 목사도 아니요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궁핍함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 형 준
(목사, 12교구 지도)

1. 분홍색 쪽지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고자 소위 '전도 훈련'이 시작되었다. 처음 미약하게 시작한 이 운동은 현재 141개국으로 확산되어 창대해졌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금년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훈련'이란 이름으로 다섯 명의 목사님으로 구성된 훈련자에 의해 열두 명의 훈련생이 열심히 전도 훈련에 임하고 있다. 참으로 작은 시작이다. 그러나, 먼 훗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씨앗을 심고 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말이다. 이 훈련을 시작한 이후로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두 가지 진단질문을 던지며 복음을 제시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6명의 결신자를 얻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느날 필자가 섬기는 전도 훈련생 가운데 한 분이 분홍색 쪽지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 쪽지에는 어느 부부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다. 쪽지 위에 기록된 분들은 지난해 교회 근방에 사시다가 고양시 일산 지역으로 이사하신 초신자 가정이었다. 그들은 이사 후에도 평소 구역예배를 드리던 서울로 나와 예배하며, 이미 싹튼 신앙이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 발걸음이 끊겼고, 교회 출석도 멈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필자가 일산지역을 담당하여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훈련생 송집사님이 그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해 준 것이었다. 그 쪽지를 전해준 집사님이 매우 고맙게 느껴졌다.

2. 끈질긴 통화

쪽지를 받아든 후, 곧바로 그 성도가 소속했던 교구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교인 카드를 찾아냈다. 기쁜 일이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이사심방을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에게 전했다. 그 카드를 받아든 전도사님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성도님! 이사 심방 받으셔야지요?" 그러자 그 성도는 "교회가 너무 멀어 출석할 수 없으니 심방을 받지 않겠어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심방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하자 계속해서 거절을 하더라는 것이다. 통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요 2부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심방을 받겠다고 승낙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한다.

결국 오랜 시간의 끈질긴 통화 끝에 딱 한 번만 심방받기로 하는 답을 얻는데 성공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닫혀진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 틀림 없으리라. 그런 답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전도사님이 자랑스러웠다.

3. 한밤중의 손님

일산지역으로 이사온 새가족에 대한 소식이 그날밤, 부지역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집사님에게 전해졌다. 평소 지역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던 이 집사님은 실례를 무릅쓰고 소식을 듣자마자 한밤중에 그 가정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구역예배뿐 아니라, 정기예배 시간도 철저히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그리고 교구 교역자를 자랑하였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역자가 성도를 자랑으로 여기고, 성도가 교역자를 자랑할 수 있는 관계"(고후 1:14)가 되기를 소망하며 권면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된다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이 부흥하겠는가! 따뜻한 집사님의 방문을 받은 새가족은 다음날 아침 심방받을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한다. 시간의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준 이 집사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라.

4. 기막힌 일정, 기막힌 만남

심방일로 예정한 날에 본래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 그 날은 한나전도회 지원처인 철원의 마현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현교회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장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부득불 방문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새가족에 대한 심방을 하루만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밤이 가고 아침이 되어 새가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현관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니 의외로 부부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먼저 와 있는 구역 일꾼의 모습이 보였다.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전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인 벧엘로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본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다. 그들의 눈은 젖어 있었고,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충현교회로 열심히 출석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였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예배 후 대화를 나누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벽 등반을 즐겨하던 남성도께서 얼마 전, 도봉산 정상에서 2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그 지점에서 떨어진 자 중 살아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살았다. 달려온 주위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그는 머리를 다치지 않았고, 낙법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막힌 일정이요, 기막힌 만남이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찬양을 드렸다.

5.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흔 아홉을 두고 길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을 떠올려 본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이리라.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한 가정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롬 8:28). 쪽지를 전해준 집사님을 사용하셨고, 승낙할 때까지 끈질기게 통화한 전도사님을 사용하셨으며, 한밤중에 가정을 방문한 집사님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부족한 종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심지어 한 가정을 찾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하시고, 높은 산에서 떨어진 형제도 살려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린다. 이후에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되길 소원한다.

◐조사◑

이 조사는 지난 4월 20일 소천하여 4월 22일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 고 정광호 장로의 장례식에서 행해진 조사입니다.

주 살아계심을 인하여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 기뻐하실 고 정광호 장로님을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의 송별예배 식전에 우리 모두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항암치료 하시면서도 모자를 쓰시고 약해진 모습으로 주일을 지키려 주의 전에 나와 교우들에게 내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간증하시던 그 얼굴이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한데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신단 말입니까! 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충현교회 23대 동기 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활동하는 부서는 달랐지만 장로님은 영아부와 유치부장, 교구장, 도서장학회 위원, 유지재단 감사로 땀과 눈물을 쏟으셨기에 그 헌신, 그 사랑, 그 모습을 다시 뵈올 수 없기에 장로님의 영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민족의 수난과 더불어 고향인 황해도 봉산군을 떠나 홀로 자유의 땅, 약속의 땅을 찾아왔고 1963년 곽영자 권사님과 결혼하시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1982년 그 해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충현기도원에서의 어느 날 밤, "박 장로! 박 장로는 고향인 선천에 가서, 나는 봉산군에 가서 충현교회를 세워 복음전파에 함께 앞장서자."고 다짐했던 지나온 일들이 새삼스럽게 기억됩니다. 장로님의 푸른 꿈이 채 이루기도 전에 먼저 가야만 합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장로님! 정광호 장로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곽영자 권사님의 생일이 아닙니까!

어찌 혼자서 김창인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시며 천국으로 가신단 말입니까?

큰아들 돈영이와 이장로님댁 따님과의 결혼예식 중에 소리없이 흐느껴 눈물을 닦으시던 장로님! 또 아들이 은행에 입사하게 되어 가정의 기쁨이라고 자랑하며 양복 한벌 맞추어 주었다는 장로님! 금실 좋은 부부애로 늘 동행하던 두 분!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464장)을 즐겨 부르던 모습!

투병생활 중 심방갔던 장로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건강할 때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라고 권면해 주던 장로님!

회사에서는 물박사로 건강을 강의한다는 정 장로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다니 정말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지요.

가끔 당회하는 날이면 제 사무실에 와서 시간 늦겠다고 재촉하시던 그 음성, 이제는 들을 수 없습니까!

암선고 받고서도 말씀과 기도로 소망중에 환난을 이기시던 고통의 순간들 …

이제 장로님의 가슴 속에 천국을 이루신 모습을 보여 주시며 말씀해 주신 것은 남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길이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장로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낙원에 가셨기에 이제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장로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의 뒤를 따르렵니다.

정광호 장로님!

장로님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던 교회 뜰에서 사랑하시던 가족들, 존경하시던 김창인 원로목사님, 함께 일하시던 교역자님, 당회원, 수많은 교우와 친지들이 모여 장로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믿음의 본과 사랑의 손길들을 길이 되새기며 장로님이 소망하셨던 남은 일들을 우리들이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운 세 아들과 자부, 손자, 그리고 권사님께서 믿음의 위업을 이어주께 영광 돌리면서 떳떳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동역하던 장로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벗! 정광호 장로님이시여!

천국에서 주님과 깊이 영생을 누리시옵소서!

언제인가 우리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편히 쉬소서!

주후 1997년 4월 22일

박승준 장로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7-5기 수강생 모집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 지도 장우천 목사)에서는 기독교신앙에 뿌리박은 건강한 가정을 설계하며 행복한 부부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약혼 또는 결혼준비중인 예비신랑 신부에게 지도목사를 비롯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심리학교수와 경제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혼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97-5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97년 5월 4일(주일)부터 6월 29일까지 2개월이고 시간은 오전 10시40분에서 12시50분까지이다.

교육장소는 교육관 208호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교제의 시간

자녀신앙교육과 영혼 구원

유년부, 오늘 오후 12시~1시

교회학교 유년부(부장 임무천 장로, 지도 염현일 전도사)는 유년부(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오늘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유년부교사실(교육관 304호)에서 갖는다. 대화 내용은 1) 자녀 교육에 관한 실제적인 방법들과 이에 대한 교회와 가정의 역할, 2) 영혼 구원에 대한 어린이들의 신앙 확립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사역 방향 3) 학부모들이 교회학교에 바라는 여러 안건들로 되어 있다. 이번 시도는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신앙지도를 하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충현복지관

미술교사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 자폐아동들을 지도할 미술 전공 교사(주 3회 오후 1시 - 4시에 일할 파트 타임 교사)를 모집합니다.

1.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포함) 1부
2. 접수마감
   1997년 4월 30일까지
3. 문의
   충현복지관: 564-4885, 562-0548

선교연구원

선교언어 안내

1. 영어
   강사 : 이선우 집사
   (외국어대 영문학과 교수)
   장소 : 베다니홀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2. 중국어
   강사 : 유춘원 선생
   (조선족, 북경대졸,
   현 총신대원 재학)
   장소 : 사랑부 교사실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새가족부를 수료하면서

문 영 숙
(새가족부 1처 1-3)

부모의 강요에 의해 잘못된 결혼, 두 아이 어미로서의 책임감,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못하고 우상을 찾고 굿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보았으나 점점 암흑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은 잘 자라 주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인 기반도 굳혀갔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회사 부도로 인해 한푼도 건지지 못했고, 경험없이 시작한 가게는 간신히 정리되었으나 남편은 술로 인해 위궤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위를 절단하기를 세 번! 길어야 일년 남짓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권유로 작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위의 모두가 내 젊음을 빼앗은 가해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투병 끝에 남편은 빚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기도 전에 딸아이는 시집을 갔고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으니 철저하게 혼자였으나 나에게 남겨진 심한 우울증과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견디다 못해 찾아간 곳은 국립정신의료원. 정신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으나 끼니 걱정을 할 만큼 무일푼인 나는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파출부를 하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구실로 자청해서 교회 식사를 맡아서 했지만 세상 것에 더 많이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나는 주일이면 배낭에다 반찬을 넣고 다녔기에 등산객으로 보이셨나봅니다. 김밥으로 인하여 충현교회 2부예배를 참석했지만 두달 동안은 예배만 드리던 나를 등록실로 보내시고 새가족 양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속된 반은 1처 1-3반. 선생님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반연숙 권사님이셨습니다. 겨우 주일성수만 하던 나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일날이 기다려질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날 수료식을 보면서 성경 옮겨적기, 결석안하기, 수료까지 4명 전도하기를 목표로 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윤삼중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서 유치원 교사인 이종순 자매가 새가족으로 우리반에 왔고 우리반원은 멀리 시집간 모녀가 만나듯 은혜속에서 양육받으며 신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이변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선생님이 적응반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방침을 몰랐던 우리는 새로 오신 선생님을 새가족인 줄 알고 환영했는데 아니 웬 말씀.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종순 자매는 울기 시작했고 나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해 하시던 새 선생님은 적응반으로 가시고 반연숙 권사님이 다시 우리반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세상 유혹이 나를 손짓해왔습니다. 오랜만에 서독에 사는 동생이 왔고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꼭 한 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적응반으로 가시는 선생님을 붙잡았고 결석하지 않기로 함께 기도해왔던 나로서는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선생님과 반원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에 부산행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마음 속에는 꿀송이처럼 영의 양식이 쌓여갔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쳤으며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료 전까지 4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새벽기도를 시작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식으로 배우며 믿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찬양이 끊이지 않으니 모두가 불황이라 푸념이어도 근심 걱정 없고 세상이 밝아 보이고 행복은 내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습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5월 1일(목) / 15교구, 16교구

크로마하프대원 모집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크로마하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옥순 집사(☎ 548-6916)에게 연락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5월 4일(주일) 오전 8시 ~오후 3시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 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모두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 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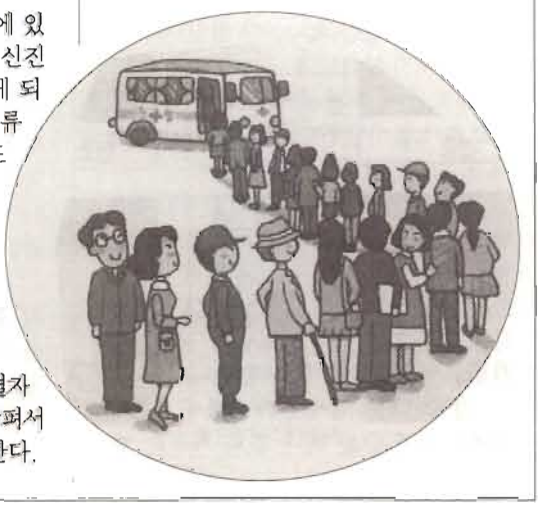
· 헌혈을 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가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 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혈 기능이 활발해지고 대뇌 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 · 외 의학계의 연구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압 측정 및 건강 진단 / 헌혈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에 대해 두루 살펴서 헌혈 여부를 판단하며 혈압도 측정한다.

— B형 · C형 간염 및 AIDS, 매독 항체검사 / 헌혈 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기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 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LT, 총단백, 알부민, A/G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지질대사의 이상 유무를 진단해 준다.